
		보 도 자 료		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	
		배포일자	2021년 6월 6일(일) 총 3매		
담당 부서	인천문화 예술회관	담당자	• 기획운영팀장 이동선 ☎420-2710 • 담당자 정수산나 ☎420-2736		
사진	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인기 만발! 인천시립합창단 <정오의 로비음악회>
한 낮, 로비에서 즐기는 합창
- 6.10 인천시립합창단 <정오의 로비음악회> 두 번째 무대 -

지난 4월 첫 무대를 선보이며 시민들의 지친 마음을 다독인 인천시립합창단(예술감독 김종현)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선보인다.

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6월 10일(목) 낮 12시에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로비에서 <정오의 로비음악회> 두 번째 무대를 펼친다고 밝혔다.

한가로운 정오, 늘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 특별한 시간을 즐기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<정오의 로비 음악회>는 풍성한 합창의 화음을 코앞에서 즐길 수 있는 시간이다. 김종현 예술감독의 친절하고도 전문적인 해설이 교감의 폭을 넓히고 감동을 더욱 깊게 만든다.

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가 8M인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로비는 소규모 합창음악의 매력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자연적이고도 좋은 음향을 가진 장소이다.

지난 한 해 동안 수차례에 걸쳐 합창영상 촬영 장소로 활용되며 그 적합성에 대한 검증을 마쳤다.

이번 무대에서는 호국의 달 6월을 맞아 ‘아름다운 나라’, ‘비목’, ‘멋진 사나이’ 등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노래들을 선보인다. 그 외에도 윌리엄 버드의 ‘성만찬 찬송’과 같은 르네상스 마드리갈, 가요 ‘섬마을 선생님’을 편곡한 버전 등 다채로운 합창을 부른다. 단 50명으로 객석을 한정, 소수의 인원만을 초대하기에 합창 애호가들의 참여가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.

<정오의 로비 음악회>는 이후 인문학, 미술, 역사, 여행 등과 같은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와 합창을 엮어 지적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무대를 이어갈 예정이다.

인천시립합창단 김종현 예술감독은 “첫 공연에 오셔서 우리의 노래를 들으며 행복해 하는 관객들을 보며 힘을 많이 얻었다. 작지만 큰 감동을 주는 연주로 보답하겠다.”고 연주 준비 소감을 전했다.



전석 초대로 진행되는 <정오의 로비음악회>는 인천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50명을 사전예약 받는다.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좌석 띄어앉기로 시행되며 입장 시 출입 확인 및 발열체크, 공연장 내 상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을 강화하며 공연장을 찾은 관객과 스태프의 안전을 도모할 계획이다.

문의) 인천시립합창단 032-420-2784

■ 인천시립합창단 특별기획연주 <정오의 로비음악회 II>

- 일 시 : 2021년 6월 10일(목) 낮 12시
- 장 소 :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로비
- 관 랑 료 : 초대(인천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)
- 관람연령 : 8세 이상
- 공연문의 : 인천시립합창단 032-420-2784
- 최/주관 : 인천광역시 / 인천시립합창단

<붙임> 관련 사진

	
<p><정오의 로비음악회> 포스터</p>	<p>로비음악회 공연 모습</p>